

4차 산업혁명시대 향한 아름다운 도전

오늘부터 전남 순천시 전국산업경진대회 열려... 도내 특성화고 8교 112명 참가

도내 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미래를 향한 도전을 펼친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오늘부터 20일까지 전남 순천에서 열리는 제9회 전국산업경진대회에 도내 8개 특성화고 학생 120여 명이 참가해 경진·경연 분야에서 기량을 겨룬다고 밝혔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전국산업경진대회는 상업계고 학생들에게 참여와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도전의 무대로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순천효산고등학교, 순천첨업고등학교, 별교상업고등학교에서 개최된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인재 육성 사업교육이라는 주제로 시·도를 대표한 전국 상업계열 특성화고 학생 1,400여 명과 지도교사 및 관계자 등 3,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경진 분야는 ▲회계실무 ▲창업실무 ▲사무행정 ▲비즈니스 영어 ▲전자상거래 실무 ▲ERP(기업자원관리) ▲취업설계 프리젠테이션 ▲호텔식음료 서비스 실무 ▲금융실무 ▲세무실무 등 10종목이다. 경연 분야는 ▲동아리 콘테스트 ▲동아리 엑스포 ▲경제 골든벨 등 3종목이며 시범종목으로 비즈니스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전북 대표로는 경진 8개교 58명, 경연 6개교 54명 등 총 112명이 출전한다.

또한, 이번 전국산업경진대회와 함께 취업박람회도 열려 학생들에게 취업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한다.

박람회에서는 학교 홍보 부스 운영, KB국민은행의 면접강화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돼 직업교육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상업계고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하고 능력을 향상 시켜 좋은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는 역량과 기회를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사회적 가치 창출 의과학융합연구소 개소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 연구

전주대학교는 최근 의과학융합연구소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의과학융합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산업과 의학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보건 의료 분야에서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설립됐다.

최근 개인의 건강과 생명 연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인구 감소 등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에 따라 생명과 건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연구소의 활동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연구소는 학제간 답을 허물고 소통과 협업을 통해 가정용 의료기기 개발 임상연구센터, 인체 움직임 및 빅데이터 분석 센터, 시니어 라이프 스타일 패턴 분석 연구센터, 3D 동작분석 연구센터, 운동·영양을 포함한 스포츠 과학 재활센터 등을 설립 운영할 계획이다.

조일영 의과학융합연구소장은 "관련 산업체들과 협력을 통해 특성화된 센터를 수시로 운영해 의과학 발전에 힘쓰고 의과학 분야 중소기업에 보조하는 등 공익적인 역할도 함께 수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대는 가정용 척추운동 마사지에 대한 임상연구, 의료보조기기 명상 적용 연구, 신발 보조기 개발 및 효과 검증 연구, 스마트 무선 근전도(EMG) 측정기 개발 연구 등 다양한 의과학분야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

/장은성 기자

호원대 학생상담센터, 대인관계 공방 프로그램 실시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 학생상담센터는 9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 4주에 걸쳐 참여를 희망하는 재학생 10명을 대상으로 객관적 심리검사를 활용한 자기성찰과 자기수용, 타인 이해와 타인수용으로 대인관계 향상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학생상담센터에서는 재학생들의 대인관계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년간 진행해오면서 "성장이란 일종의

뻘어 나가는 과정이다. 그런데도 무엇을 하고 싶다는 충분한 이유를 가지지 않고 있다면 타고난 기질을 충분히 발휘하려 하지 않는다"며, 이런 의미를 담아 이번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의 타고난 성격을 찾아 관계 속에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 타고난 기질을 발휘할 수 있는 동기를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개발됐다.

대인관계공방 프로그램은 ▲검사해

석 안내와 자기평가 작성 ▲유형별 지리 찾기과 가면 만들기 ▲캐릭터에 대한 탐색 및 그룹별 토론 ▲서로의 공통점 찾기 ▲자기성찰과 자기수용 ▲집단 캐릭터 만들기과 시각화 작업 ▲타인 이해와 수용하는 시간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학생상담센터는 대학혁신지원 사업을 운영하면서 HAPPY UP 프로그램을 새롭게 구성하여 H-3E를 개발하고 재학생들이 비교과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호원대 학생상담센터가 17일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 토크콘서트'의 시간을 가졌다.

성인지 감수성 향상으로 건전한 대학 분위기 조성

호원대,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 학생상담센터에서는 전북서부해바라기센터와의 연계사업으로 학생들에게 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 토크콘서트'의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17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된 '2019학년도 성폭력 예방교육 토크콘서트'는 약 1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켜 안전한 대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건전한 대학 내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문화기획팀'의 이유진 작가를 초청해 '성인지 감수성 교육 및 올바른 페미니즘 갖기'라는 주제로 참여 학생들이 익명으로 실시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평소 가지고 있던 성관련 고민을 솔직하게 올리고 강연자가 답하는 코너가 눈길을 끌었다.

이울러 건전한 대학생활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을 통해 사회적·문화적 요인으로 배제와 차별이 일어나는 젠

더 관점에 기반해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고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방지를 위한 유의사항을 알아봄으로써 성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폭력예방과 양성평등한 관계를 정립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미영 학생상담센터장(심리상담치료학과 교수)은 "이번 교육은 학생들이 성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토크 형식으로 성에 대한 생각을 탐색하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는 기존 형식의 틀을 혁신적인 교육방식으로 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상호존중과 배려를 배우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예술의 날개, 하늘 높이 날다'

소리문화의전당서 전북학교예술교육 페스티벌 열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19 전북학교 예술교육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7~20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예술의 날개, 하늘 높이 날다'라는 주제로 오케스트라, 뮤지컬, 연극, 미술 등 학교예술교육지원 지정학교와 초·중·고 예술동아리 중심으로 진행되며, 학교와 지역사회 문화예술 자원을 연계해 예술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북학교예술교육 페스티벌엔 학생동아리 100여팀, 학부모·교사 6000여명이 참여하며 오케스트라, 뮤지컬, 연극, 합창, 비보이, 뮤지컬, 락밴드, 댄스, 난타, 사물놀이 등 11개 분야의 다채로운 공연이 모일다. 연극, 명인홀과 야외무대에서 펼쳐진다. 또 야외부스에선 미술체험부스와 함께 바른 식습관 교육 캠페인의 일환으로 '흡연예방·금연체험', '건강놀이터·튼튼먹거리 탐험대' 흥

보 부스도 설치해 운영한다.

야외공연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본 공연은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이어지며 '흡연예방교육, 튼튼먹거리 탐험대' 체험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능하다.

3일간 펼쳐지는 모든 공연은 지정좌석제로 운영하므로 티켓은 사전예약 해야 하고 관람 신청은 각 급 학교 또는 도교육청 인성건강과로 신청, 문의하면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참여 학생들의 성취감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영역의 예술체험 활동과 협력적 창조 활동으로 공감과 소통 능력을 키우게 될 것"이라며 "예술교과 수월성 교육 구현 및 창의력 신장을 통한 예술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북학교예술교육 페스티벌에는 3일간 7,000여명이 공연 및 관람에 참여한 높은 만족도를 보이기도 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THE세계대학평가 '거점국립대 2위' 수성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지난 16일 영국 Times 고등교육이 발표한 '2019 THE 세계대학평가'에서 지난해 이어 거점국립대 2위(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제외)를 수성했다고 밝혔다.

2004년부터 시행된 이 평가는 올해 세계 1,396개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 30%, 연구 30%, 논문인용 30%, 국제화 7.5%, 산업소득 2.5% 등 5개 분야 13개 지표를 분석해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번 평가에서 세계 1,000위 이내 대학 중 국내 대학은 31개였다. 전북대

는 세부 지표에서 교수당 박사학위 배출 인원 등 교육여건과 외국인 학생 비율 등 국제화 부분에서 지난해에 비해 점수가 상승했다. 또한 교수법인 서울대 제외)를 수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대는 지난 6월에 영국 글로벌 대학평가기관 QS가 발표한 세계대학평가에서도 7년 연속 거점국립대 2위에 오르는 등 경쟁력이 있는 대학임을 입증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올바른 역사관·공직관 정립 나서

전북도교육청은 오늘부터 20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서울 및 경기도 일원에서 나라사랑연수를 진행한다 고 17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안보의식을 강화하고 올바른 역사관 및 공직관을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도교육청을 비롯해 교육지원청·지속기관·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 55명이 참여한다.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연수 첫날은 대한(윤병길의사) 기념관, 안중근의사 기념관, 현충원을 방문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들에게 감사

를 표하고 그 뜻을 기리는 시간을 갖는다. 둘째 날은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과 오두산 통일전망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식민지역사박물관 등을 탐방하며 우리의 아픈 역사를 되짚어 본다. 마지막 날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견학을 통해 대한민국의 태동에서부터 광복, 대한민국 정부수립, 6·25전쟁과 전후복구, 국민국가 토대구축까지의 과정을 살펴봄에 나라사랑 마음을 키우고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